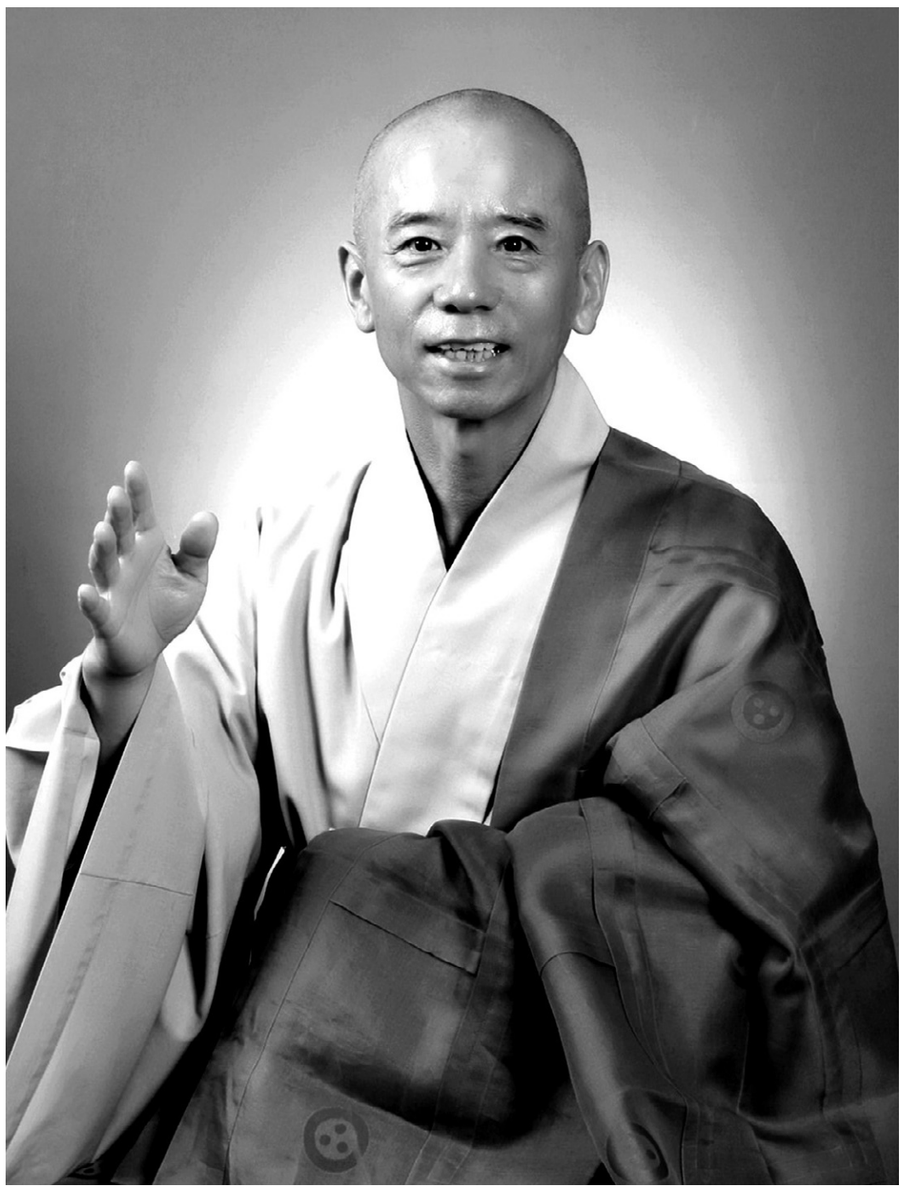

佛紀 2557年(癸巳年) 臨濟禪院 夏安居 結制法門

是什麽
시 십 마

垂示云하되 休去歇去萬年去하니 靑天霹靂轉轟轟이요
수시운 휴거헐거만년거 청천벽력전굉굉
平地洪波起滔滔로다. 熾然作用得自在하니 寸草不生千萬里나
평지홍파기도도 치연작용득자재 촌초불생천만리
出門春色共依依로다.
출문춘색공의의

擧圓悟勤禪師問大衆하되 不是心이요 不是佛이요 不是物이니
거원오근선사문대중 불시심 불시불 불시물
是什麽오하니 拙이 云하되 且道하라 喚作什麽하야 卽契祖師意오
시십마 졸 운 차도 환작십마 즉계조사의
於此에 一等靈利漢이 拶破面門開突出하니 四海逆流淸風起로다.
어차 일등영리한 찰파면문개돌출 사해역류청풍기
雖然不直半分錢이나 沙界七寶難可比로다.
수연불치반분전 사계칠보난가비
又拙頌云하되
우졸송운
不是心兮不是佛하고
불시심혜불시불
不是物兮是什麽오
불시물혜시십마
空劫而前眞消息을
공겁이전진소식
井底泥牛弄月歌로다.
정저니우농월가

喝一喝
할일할

佛紀2557年 夏安居 結制日
불기 년하안거결제일
臨濟禪院 拙衲 法玄
임제선원 졸납 법현

이 무엇고?

수시하여 이르되
쉬어 가고 놓아 가서 만년을 가니 청천에서 천둥이 우르렁 거리며 구르고 평지에서 넓은 파도가 도도히 일어나도다.
치연히 작용하여 자재함을 얻으니 마디풀도 천만리에 나지 안했으나 문을 나서니 봄빛이 한가지로 무성하도다.

드노니
원오 극근 선사가 대중에게 묻되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일러라, 무어라고 불러야 바로 조사의 뜻에 계합할 것인가?
졸납이 대신 말하여 이르되
여기에서 일등의 영리한 놈이 얼굴을 찰싹 쳐서 열자 툭 튀어나오니 사해가 거꾸로 흐르고 맑은 바람이 일어나도다.
비록 그렇지만 반 푼의 값도 없으나 항하사 법계의 칠보로도 가히 견주기가 어렵도다.
또 졸납이 송하여 이르되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고?
공겁이전의 참 소식을
우물 밑의 진흙소가 달을 가지고 노래하도다.
일할을 할하다.

불기 2557년 하안거 결제일
임제선원 졸납 법현

■ 임제선원장 현봉 법현(玄峯 法玄) 선사는…

1952년 전북 부안에서 출생 / 1987년 장성 백양사로 출가 / 서옹대종사 문하의 시몽화상을 은사로 득도 / 사미계를 받은 후 서옹대종사 시봉 / 1992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 수지 / 서옹대종사께서 정법을 부촉하신 장실(丈室) 법제자 제산종성(濟山宗成) 선사의 법을 이음 / 경북 상주 임제선원에 주석 / 법문집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제 창 提唱

心隨萬境轉심수만경전하니 轉處悉能幽전처실능유로다
隨流認得性수류인득성하니 無喜亦無憂무희역무우로다

마음이 만 가지 경계를 따라 구르니
구르는 곳마다 깊고 미묘하도다.
흐름을 따라도(변함없이 밝고 고요한)
그 본성을 아니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도다.

불조전등 22대 조사 마나라 존자 게송

일체 중생이 누구나 똑같이 참으로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보배로운 마음이 있지만 보고 듣고 하는 빛깔과 소리의 경계를 따라서 기쁘고 슬픈 마음만 낼 줄 알지 자기 마음 본성을 모르기 때문에 꽃이 아름답게 필 때 기쁨은 잠깐이요 추하게 시들어 질 때 슬픔과 근심은 한량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경계를 따라 흐를 때 둥글고, 모나고, 곧고, 굽게 흐르면서도 그 어떤 모양도 아닌 물의 본성을 잃지 않듯이 날마다 경계를 따라 마음을 천만 가지로 쓸 때 자기 마음속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가?〈不是心불시심 不是佛불시불 不是物불시물 是什麽시십마〉" 화두 하나를 간직하여 보고 나간다면 반드시 머지않아 어떤 경우에도 항상 거울처럼 고요하고 밝게 비추는〈寂照雙流적조쌍류〉 자기 마음 본성을 보아서 기쁨과 근심으로 웃고 울고 하지 않는 大解脫대해탈.大自由대자유 大光明대광명 大生命대생명 大安樂대안락의 영원히 변함없는 본래의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화두공부처럼 위대하고, 거룩하고, 쉽고, 지름길로 빠르게 성취할 수 있는 공부와 사업은 우주 간에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祖師조사 이르시되

要開萬世無窮業요개만세무궁업인데
只在堅持一寸心지재견지일촌심이라

반드시 만세토록 무궁한 업적을 이루고자한다면
다만 굳게 일촌심화두일념을 가지는데 있도다.

하셨습니다.

이 화두에 졸납이 수시하여 말해보겠습니다.

休去歇去萬年去휴거헐거만년거하니
靑天霹靂轉轟轟청천벽력전굉굉이요
平地洪波起滔滔평지홍파기도도로다

쉬어 가고 놓아 가며 만년을 가니
청천에 천둥소리가 요란하게 우르렁거리고
평평한 대지에 드넓은 파도가 도도하도다.

石霜석상〈807~888 慶諸경저〉 七去法門칠거법문에 "쉬어가고〈休去휴거〉 놓아가고〈歇去헐거〉 한생각이 만년을 가고〈一念萬年去일념만년거〉 마른 나무와 찬 재와 같이 가고〈枯木寒灰去고목한회거〉" 등이 있습니다. 참선공부하는 마음은 일체의 번뇌망념이 다 쉬어버리고 다 놓아버리고 마른 나무와 찬 재 같은데서 화두 한 생각이 만년을 가야 참으로의 공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초심자가 공부가 익숙해지면 마음을 말리고 분별정념을 잊으며 마음으로 화두를 애써서 가지려 집착하지 않아도〈左右生處已熟좌우생처이숙 熟處已生숙처이생 十二時中십이시중 自然不着자연불착 枯心忘懷고심망회 將心管帶矣장심관대의...書狀答曾宗丞서장답증종승〉 자기 본래 청정한 마음만 智慧觀照지혜관조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다 쉬어버리고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한 생각이 만년을 가는데 쾌청한 청천에 천둥소리가 우르렁거린다는 것이며 평지에 넓은 파도가 도도히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저 六祖육조께서 臥輪禪師와륜선사를 비판하시되

와륜은 재주가 있어서 臥輪有伎俩와륜유기량하니
능히 백 가지 생각을 끊는도다. 能斷百思想능단백사상이라
경계를 대하여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對境心不起대경심불기하니
보리도가 날마다 길어나도다. 菩提日日長보리일일장이로다.

혜능은 아무 재주가 없어서 惠能無伎俩혜능무기량하야
백 가지 생각을 끊지 않도다. 不斷百思想부단백사상이라
경계를 대하여 마음이 자주 일어나니 對境心數起대경심삭기하니
보리도가 어찌 길어남이 있으리요. 菩提作麽長보리작마장이리요

하시니 여기서 臥輪禪師와륜선사는 자기의 眞如本性진여본성을 깨치지 못했기에 모든 생각을 끊어서 경계를 대하여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서 枯心忘懷고심망회하고 將心管帶장심관대하는 初心修行초심수행에 집착하고 있으나 六祖육조는 五祖오조께서 설하시는 金剛經금강경의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應無所住而生其心응무소주이생기심〉"는 말씀을 듣고서 言下언하에 大悟대오하여 일체만법이 자기 진여본성을 떠나 있지 않음을 아시고 마침내 五祖오조께 말씀하시되

참으로 결정코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하오며
참으로 결정코 자성이 본래 생멸치 않사오며
참으로 결정코 자성이 본래 스스로 일체가 구족했으며
참으로 결정코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으며
참으로 결정코 자성이 능히 만법을 생하나이다.

라고 하시니 五祖오조께서 혜능이 자기 진여본성을 깨달았음을 아시고 바로 장부로서 천상과 인간의 스승인 부처라 이름하시고 삼경에 법을 받으니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祖以袈裟遮圍 不令人見 爲說金剛經 至應無所住而生其心 能
조이가사차위 불령인견 위설금강경 지응무소주이생기심 능
言下大悟 一切萬法 不離自性 遂啓祖言 何期自性本自淸淨 何
언하대오 일체만법 불리자성 수계조언 하기자성본자청정 하
期自性本不生滅 何期自性本自具足 何期自性本無動搖 何期自
기자성본불생멸 하기자성본자구족 하기자성본무동요 하기자
性能生萬法 祖知悟本性 卽名丈夫天人師佛 三更受法 人盡不
성능생만법 조지오본성 즉명장부천인사불 삼경수법 인진부
知便傳頓教 及衣鉢云 汝爲六代祖 善自護念 廣度有情 流布將
지편전돈교 급의발운 여위육대조 선자호념 광도유정 유포장
來 無令斷絶.....壇經 悟法傳衣
래 무령단절 단경 오법전의

※ 현재의 교계에서 유포된 모든 단경번역본에서 이상의 '何期自性云云하기자성운운' 의 다섯 구절을 거의 동일하게 誤譯오역하여 말하되 "어찌 자성이 본래.....함을 알았으며"라고 하는 것은 六祖육조가 言下언하에 眞如本性진여본성을 大悟대오하신 확신에 찬 소식을 정반대로 왜곡하는 매우 중대한 대표적 오역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大悟대오한 사람이 깨닫지 못한 시절을 잠꼬대하는 꼴이 되고 말았으니 宗旨上종지상으로도 맞지 않지만 文理上문리상으로도 여기서 '何期하기' 의 '何하' 는 '어찌' 의 의문사가 아니고 '참으로' 의 감탄사요 '期기' 는 '결정코' 의 뜻으로 번역해야 맞는 것입니다. 六祖壇經육조단경은 우리 曹溪宗조계종의 聖典성전으로서 宗旨上종지상으로나 文理上문리상으로 聖師성사의 뜻과는 南北남북이 相反상반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니 실로 仰天爆笑앙천폭소할 부끄러운 일로써 비판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熾然作用得自在치연작용득자재하니
寸草不生千萬里촌초불생천만리나
出門春色共依依출문춘색공의의로다.

치연히 작용하며 자재함을 얻으니
마디풀도 나지 않은 천만리에
문을 나서자 봄빛이 한가지로 무성하도다.

여기서는 앞에서 休去歇去휴거헐거와는 정반대로 치연히 작용하며 자유자재함을 얻었는데 어째서 한 생각도 나지 않은 천만 리에 문밖으로 나서니 봄빛이 한 가지로 무성하냐는 말입니다. 이상의 뜻을 바로 알면 저 六祖육조께서 "무슨 물건이 이렇게 오는고?〈什麽物恁麽來십마물임마래〉" 묻자 懷讓禪師회양선사께서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設似一物卽不中설사일물즉부중〉"라고 답하신 뜻도 알 수 있고 여기서 圓悟禪師원오선사께서 보이신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고?〈不是心불시심 不是佛불시불 不物是불시물 是什麽시십마〉" 화두의 뜻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大慧禪師대혜선사의 宗門武庫종문무고에는 다음과 같은 法門법문이 있습니다.

범현군의 호는 적수도인으로서 성도에 있으면서 불과 원오선사를 참학하였다. 불과선사는 범현군으로 하여금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고?"라는 화두를 참구해 보도록 하였다. 범현군은 무어라 말할 수 없고 입을 열 수도 없었다. 오며 가며 살펴보며 참구하였으나 들어갈 곳이 없자 몹시 걱정스럽고 초조한 마음이 일어나서 불과선사에게 물어 이르되 '이 외에 어떤 방편이 있어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할 수 없습니까?' 불과선사 이르되 '한 개의 방편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니라. 여기에서 범현군 적수가 깨닫고 이르되 '원래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하였다.

范顯君號寂壽道人 在城都參佛果 果教渠看不是心不是佛不是
법현군호적수도인 재성도참불과 과교거간불시심불시불불시
物是什麽 不得下語 不得開口 看來看去 無入頭便覺 悽惶乃問
물시십마 부득하어 부득개구 간래간거 무입두편각 처황내문
佛果云 此外有何方便 令某甲會去 果云有箇方便 不是心不是
불과운 차외유하방편 령모갑회거 과운유개방편 불시심불시
佛不是物 壽於此有省 乃云元來得恁麽近...宗門武庫
불불시물 수어차유성 내운원래득임마근 종문무고

자, 그러면 무어라고 해야 바로 조사의 뜻에 계합하겠습니까?〈且道喚作什麽차도환작십마 卽契祖師意즉계조사의〉

於此一等靈利漢어차일등영리한이 拶破面門開突出찰파면문개돌출하니
四海逆流淸風起사해역류청풍기로다 須然不直半分錢연불치반분전이나
沙界七寶難可比사계칠보난가비로다.

여기서 일등의 영특하고 날카로운 놈은
얼굴을 찰싹 치자 열려 툭 튀어나오니
사해가 거꾸로 흐르고 맑은 바람이 일어나는 소식을 아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더라도 세상의 눈 먼 사람들은 반푼의 돈도 치지 않으나
실로 항하사 세계의 진귀한 칠보로도 그 물건과는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이 中下중하의 근기를 위해서는 戒定慧계정혜와 六度萬行육도만행을 닦아서 성불하는 길을 누누이 말씀하셨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편이지 실법은 아님을 正眼祖師정안조사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밖에 법이 없고 마음 안에도 얻을 법이 없으니 무슨 물건을 구하는고? 마음 밖으로 닦을 것이 있고 증득할 것이 있으면 어긋나지 말지어다. 설사 닦아서 얻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생사업이요 그대가 육도만행을 다 닦는다 하나 내가 볼 때는 모두 업을 짓는 것이요,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면 즉시로 지옥 업을 짓는 것이요, 경을 보고 교를 봄도 역시 업을 지음이거니와 부처와 조사는 일이 없는 사람이라 유루유위(有漏有爲:중생의 번뇌와 행위)와 무루무위(無漏無爲:번뇌가 없고 함이 없음)가 모두 청정한 업이 되느니라. 일반적으로 눈먼 대머리 중들이 배불리 밥을 먹고서 문득 좌선과 관법을 수행함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붙잡아 함부로 일어나지 않게 하며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조용함을 구하니 이것은 외도의 법이니라.

조사 이르시되 '네가 만약 마음을 머물러서 조용함을 보고 마음을 들어서 밖으로 경계를 비추며, 마음을 가지고 안으로 생각을 맑게 하며, 마음을 모아서 선정에 드는 이와 같은 무리들은 모두가 조작된 마음이니라.....무릇 대선지식은 비로서 감히 부처를 헐뜯고 조사를 헐뜯으며 천하 사람의 옳고 그름을 지적하며 경율논 삼장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어린 아이 같은 모든 소승근기들을 꾸짖어 욕하고 마음에 거슬리고 마음에 맞는 역순 가운데서 참사람〈無位眞人위무진인〉을 찾느니라.

자고로 선배는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불신하여 번갈아 쫓겨남을 당하게 되나니 이것이 귀한 사람인 줄을 알지어다. 만약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여 옳다고 한다면 감히 무엇이 되겠는가?

心外無法內亦不可得 求什麽物 你諸方言道 有修有證 莫錯設
심외무법내역불가득 구십마물 이제방언도 유수유증 막착설
有修得者 皆是生死業 你言六度萬行齊修 我見皆是造業 求佛
유수득자 개시생사업 이언육도만행제수 아견개시조업 구불
求法 卽是造地獄業 求菩薩 亦是造業 看經看教 亦是造業 佛與
구법 즉시조지옥업 구보살 역시조업 간경간교 역시조업 불여
祖師 是無事人 所以有漏有爲 無漏無爲 爲淸淨業 有一般瞎禿
조사 시무사인 소이유루유위 무루무위 무청무업 유일반할독
子飽喫飯了 便坐禪觀行 把着念漏 不令絆起 厭喧求靜 是外道
자포끽반료 편좌선관행 파착념루 불령반기 염훤구정 시외도
法 祖師云 이若住心看靜 擧心外照 攝心內證 凝心入定 如是之
법 조사운 이약주심간정 거심외조 섭심내증 응심입정 여시지
流 皆是造作.....夫大善知識 始敢毁佛毁祖 是非天下 排斥三藏
류 개시조작 부대선지식 시감훼불훼조 시비천하 배척삼장
教 罵辱諸小兒 向逆順中現人.....自古先輩 到處人不信被遞出
교 매욕제소아 향역순중현인 자고선배 도처인불신피체출
始知是貴 若到處人盡肯堪作什麽...臨濟禪師語錄
시지시귀 약도처인진긍감작십마 임제선사어록

그러므로 일등의 영특하고 날카로운 상근기는 얼굴을 찰싹 치자 바로 열려서 그 마음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니 임제스님께서도 經律論경율논 三藏삼장을 배우다가 이것이 달 가리키는 손가락과 그림의 떡처럼 그려서 표현한 말이지 마음의 실체가 아님을 깨닫고서 참선을 하였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황벽스님으로부터 아프도록 삼십 방망이를 세 번 맞고서 그 뜻을 모르다가 마침내 대우스님 처소에 가서 호통을 맞고 아픈 그 마음의 실체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따귀를 맞거나 방망이로 맞거나 추우면 춥다하고 더우면 덥다하고 괴로우면 괴롭다하고 즐거우면 즐겁다고 하고 미우면 밉다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하고 옳으면 옳다하고 그르면 그르다하는 것이 모두 자기 마음이 튀어 나오는 것이지만 거기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고 부처님 말씀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 산 넘어서 연기가 나자 거기에 불이 있는 줄 모르고서 다른 데로 불 찾으러 가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마음의 실체를 볼 것 같으면 四大海해가 거꾸로 흐르는 천재지변의 대재앙 속에서 좋은 시절의 淸淨風풍이 일어난다는 말의 소식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상천하에 다시 없이 기특한 마음이라도 세상에 내놓으면 막상 그 모양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서 눈 먼 다수의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반 푼어치 값도 쳐주지 않는 것이나 눈 뜬 사람이 볼 때는 저 항하사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도 그 진귀한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끝으로 졸납이 송하겠습니다.

不是心兮不是佛불시심혜불시불이요 不是物兮是什麽불시물혜시십마오
空劫而前眞消息공겁이전진소식을 井底泥牛弄月歌정저니우농월가로다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고?
공겁이전의 참 소식을 우물 밑의 진흙소가 달을 가지고 노래하도다.

저와 같이 진귀한 보배를 마음이라 말하나 실제로 마음도 아니요 부처라 말하나 실제로 부처도 아니요 물건이라 말하나 실제로 물건이 아니니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모든 만물과 우주가 생기기 전의 참소식으로서 단적으로 말한다면 '우물 밑의 진흙소가 밝은 달을 가지고 노래한다.' 는 것이니 이 말을 바로 알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이 무엇고?' 의 뜻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할을 할하다.